

сахалин주 사회정치신문 <hr/>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h1>새고려신문</h1>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2018년 9월 21일(금) ..(음력 8월 12일).. Пятница 21 сентября 2018 г. № 37(116804)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사할린주미술박물관, 35주년 기념

9월 20일 사할린주미술박물관이 창립 35주년을 기념한다. 사할린주미술박물관은 1983년 9월 20일 사할린주문화국 명령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의해 창립되었다. 1986년에 주미술박물관 건물로 1930년에 건립된 <타쿠쇼쿠> 일본 은행 건물이 모태다. 이 건물의 첫 전시는 1989년 3월 25일에 있었다. 현재 사할린주미술박물관은 계몽·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문화 및 예술의 중심 센터이다. 미술관은 35년간 400여 전시, 2000여 행사를 진행했으며 소장품 1만4천6백여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사할린주 문화부가 전했다.

(이예식 기자 촬영)

北 김정은 서울 간다...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공동 서명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수)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조선공화국 최고지도자의 남한 방문은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서명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또한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 방문하기로 했다. 가까운 시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는 의미를 담는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두 정상이 이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회담을 마치고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김 위원장이 '가능한 한 빨리'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며 만약 성사된다면 이는 "한반도 분단 이후 수십년만에 첫 방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평통, 9.18~21일 서울에서 해외지역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 18기 해외지역회의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회의는 "평화로운 한반도, 번영하는 한민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러시아, 일본, 중국, 아시아 지역 23 개 협의회 소속 65개 국의 자문위원 1,000여명의 참가하에 진행되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협의회와 모스크바 협의회를 대표하여 약 40명이 행사에 참가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사할린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이루쿠츠크에서 온 사할린동포 8 명의 민평통자문회의 고문도 있었다. 또한 아시아지역 협의회에 속하는 중

앙아시아지역은 이곳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의 국가에서 온 18명의 고려인들도 대표단 일원으로 포럼에 참가하였다.

이낙연 한국국무총리는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말에서 (재러 동포들이) 고문자적으로 협의회의에 참석하게 된 러시아를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지역회의는 마침 북과 남의 평양정상회담이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9·19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던 바로 이 역사적인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진행되었기에 한결 뜻이 깊은 행사로서 모든 참가자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다.

(2면에 계속)

단신

사할린주체육스포츠장애인축제 개최

21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2년여 한 번 하는 사할린주장애인체육스포츠대회가 개최된다. 스포츠축제에는 주의 13구역(오하, 노글리키, 포로나이스크, 네웰스크, 돌린스크, 아니와, 스미르니호,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티몐스코예, 마카로브, 토마리, 홈스크)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스포츠대회 프로그램에는 볼, 다트, 탁구, 바구니에 농구 공 던지기, 체커 및 팔레슬링이다.

경기는 그룹별(근골격계 장애가 있는 사람들, 농아인, 맹인 스포츠, 일반 질환 환자)로 진행된다.

각 분야 수상자는 상품으로 시상된다. 장애인스포츠대회는 11시 훗카이도 센터의 테니스 클럽 스포츠장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주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주, 예방접종캠페인 한창

현재 사할린에서 인플루엔자(독감)에 대한 예방 접종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의료진들은 예방 접종을 21만 9천명의 주민들에게 처방할 계획인데 그 중 70%는 어린이들에게 접종할 계획이다.

현재 이미 예방접종을 한 4만9천명의 주민 중 절반이 어린이들이라고 사할린주 보건부 홍보실이 전했다.

어린이, 대학생, 임산부, 의료 및 교육 기관 일꾼, 운송 회사 직원,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다른 서비스분야 근로장, 만성 질환 환자 등이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예방주사는 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고 의료진들은 유치원, 학교 등으로 출장을 나가 예방접종을 하기도 한다.

독감 예방접종캠페인과 동시에 사할린주에서는 폐렴 구균 감염에 대한 예방접종 캠페인을 현재 진행 중이다.

사할린주지사, 청년들과 만나

올레그 코제야코 주지사는 <평등한 대화> 학생논의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대학생, 자원봉사자, 청년사회단체 대표, 선수 등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지사는 사할린 및 쿠릴의 사회경제 개발의 주요 방면, 섬지역 청년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 정부가 어떤 유리한 조건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주지사는 사할린국립대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젊은이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경청하기도 했다. 제안중에는 사할린주정부 청사 앞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것, 사할린에서 아시아태평양청년포럼을 개최하자는 안건 등이 주를 이뤘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구독을 시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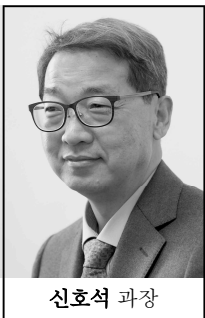
6개월 구독료는 4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예비교원, 본격적으로 한글교육 펼쳐

지난 9월 1일 해외과
견 실습 사업으로 사할린
에 도착한 1차 예비교원·
경력교원단은 본격적으
로 사할린동포를 비롯 주
민들을 위한 한글교육을
시작했다.



신호석 과장

사할린 한국교육원 에
서는 현재 한국 예비교원
들의 수업을 약 80여 명이
받고 있다. 원어민들이 하는 수업이라 희망
자들이 아주 많다고 한다.

평일 낮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
나지아, 제2김나지아인 한국어채택학교에
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주말 예비교원(대학
3,4학년, 석사 과정)들은 주로 지방 한글
학교(코르사코브, 아니와, 돌린스크 등) 등
을 돌며 한국어 모의 수업을 펼친다.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예비교원들
은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
에서 일주일내 한국어과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여러 주제로 모의 수업을 할 것
이고 또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교수들의
수업들을 참관하며 문화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어 예비교원들은 지난 해부터 처음
사할린에 파견되었다. 이 사업은 한국 문화
체육관광부 소속 국립국어원이 지원하고 있
으며 올해는 경희대학교가 위탁운영 중이다.

지난 18-20일간 이 사업의 실태과약
을 위해 한국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한국
어진흥과 신호석 과장과 김수현 학예연구
사가 사할린을 방문했다.

이들은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
환),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



(학장 임 엘위라 한국어교수), 코르사코브
한인회(회장 이태출) 등을 방문했다.

신호석 과장은 "현재 예비교원 파견 실
습 사업을 카자흐스탄, 일본에서도 진행
중인데 사할린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할린에
온 예비교원들의 경우 지방 출장도 잦고
타국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
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신 과장은 "사할린한국교육원 에
서 많은 도움을 주고 사할린국립대에서도
여러모로 협조하고 있다"며 "예비교원들
은 지방 한글학교에서의 모의 수업의 경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도 하다"며 설명했
다. 또 "국어원에서는 이번 사업이 좋은
효과를 가져오며 성공적으로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기자)

민주평통, 9.18~21일 서울에서 해외지역회의 개최

(1면의 계속)

민평통자문회의 제18기 해외지
역회의는 통일공감토크와 분입토
의를 통해 협의회별 평화통일활동
실천과제를 논의하고, 해외 청년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토의
가 벌어졌고, 통일을 위한 공공의
교 활동과 통일·안보 현안 전문가
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건의
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사회
의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협력 분
위기를 조성, 현지 한반도문제전문
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성시 예상
될 다양한 사안을 협의하였다.

모스크바협의회는 남북 과학
기술 통일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고려인 과학기술자 협회'와 '재러
한인 과학자 협회'를 중심으로 남
북 과학기술 차이를 분석하고 통
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하였고, 그 효과는 장차 식량
안보, 보건의료, 광물자원, 에너지,
사회기반 시스템, 과학기술 체계
등 실제적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스, 철도, 항만, 에너지, 농업,
수산업 등의 분야는 한-러 간 경제 협력
의 9 개 다리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향후 시
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러시아동포 과학
기술자들은 남북한 과학기술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하는데 한몫 기여할 수 있게 된다.

9월 평양 정상회담시 문재인대통령



왼쪽으로부터: 임용균 전 사할린주한인회 회장, 김홍
지 사할린주한인노인회 회장,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 김춘자 <우리 말>TV방송국 국장



왼쪽으로부터: 김복곤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동포
연합회 회장, 김태성 모스크바사할린동포연합회 회장, 김
수만 모스크바사할린동포연합회 부회장

을 수행했던 김덕룡 민평통자문회의 수
석부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해
외자문위원의 역할'에 대한 특별강연에
서 회담 진행과정에 대한 소감을 나누어
온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회의
는 정책건의안 채택을 끝으로 모든 일정
을 마감하였다.

(서울에서 김수만 모스크바주변지역
사할린동포연합회 부회장)

이모저모

사할린 남부 9 개 촌에서 인지적 과학박물관 전시 열려

인터랙티브 재미있는 과학박물관이 사할린 남부
촌들을 돌며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사할
린주정부의 장려금으로 실시하게 된 이번 기획은 이
제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현재 주최측은 아동들로부터
온 편지를 수렴해 시상식 준비에 여념이 없다.

<살아 있는 과학> 비영리 단체 대표 안톤 볼투노브
는 "우리는 올해초에 장려금을 받았다. 받은 장려금으
로 물리학, 수학, 천문학의 법칙을 제시하는 각종 전시
물을 소장하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재미있는 과학博物
관을 설립했다. 그것(전시물)을 가지고 지방을 순회한
것이다. 다양한 현상을 전시한 것 이외에 우리는 아동
들로 하여금 과제 세트를 풀어 보고서를 보낸 다음
성적에 따라 상품을 받도록 추천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학에 대한 아이들의 관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돌린스크·아니와·코르사코브 구역의 9 개 촌에
서 박물관 순회전시가 있었다.

지금 주최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달받은 과제들
의 답안을 검토하며 최종 행사인 우승자 시상식을 준
비하고 있다. 견학은 무료. 인터랙티브 박물관의 전시
물들은 아동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Devять сел юга Сахалина посетил музей занимательных наук

Интерактивный музей занимательных наук проехал
по селам юга Сахалина. Проект, ставший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грант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актически завершен - сейчас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бирают
письма от детей и готовят итоговую церемонию награж-
дения.

- Грант мы получили в начале года. На его средства
сделали интерактивный музей занимательных наук, в
котором различные экспонаты демонстрируют законы
физики, математики и астрономии. С ним мы проехали
по селам. Кроме демонстрации различных явлений мы
предлагали ребятам набор задач, которые они должны
решить, прислать нам отчет и по итогу получить призы,
- рассказал Антон Болтун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АНО «Живая наука».

Он пояснил, ч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рганизаторы стара-
ются зазечь у детей интерес к науке.

Музей побывал в девяти селах Долинского, Анивско-
го 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Сейчас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би-
рают ответы на конкурсные задачи и готовят итого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 награждению победителей.

Экскурсии проходят бесплатно. Экспонаты интерак-
тивного музея вызываю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ребят.

<부메랑> 클럽 회장, 연해주 동료들에게 향토연구 돕는 보드게임 발표

<부메랑> 사할린 클럽 회장인 발렌티나 메첸체와
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향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료들을 위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연해주의 여러 비영리단체 대표
들이 참가했다.

향토교육과 관련된 보드게임 개발기법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세미나는 <야생 언어 센터>의 지원을 비롯
해 <부메랑> 클럽과 블라디보스토크 해양생물연구소
가 공동 주최하에 진행되었다.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획팀별로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서 교육프로그램 실행에 있어 보드게임 이용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과 게임 개발에 필요한 인원수
측정, 게임아이디어 개발·설계 등을 과제로 삼았다.

참가자들은 "이제는 향토교육 주체의 보드게임과
체감형 게임을 제작함으로써 자신의 많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고 <부메랑> 클럽 홍보
실이 보도했다.

Руководитель клуба "Бумеранг" рассказала коллегам из Приморья о настольных играх по краеведению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клуба "Бумеранг" Валенти-
на Мезенцева провел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еминар
для коллег, проводящих с детьми и молодежью просвети-
тельские программы по краеведению. Участники были
из различных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иморья.

Семинар был посвящён технологии разработки на-
стольных игр краеведческой тематики и организован
клубом "Бумеранг" совместно с музеем института био-
логии моря Владивосток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дико-
го лосося".

Во время семинара участники работали проектными
командами. Их задачей было, выполняя задания вме-
сте, понять, в чём особенности и сильные стороны ис-
пользования настольных игр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

граммах, 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нужно, чтобы разработать
игру, как планировать и разрабатывать идею игры.

Участники отметили, что теперь многие свои идеи
смогут воплотить в виде краеведческих настольных
и подвижных игр,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луба
"Бумеранг".

유즈노사할린스크 챔버오케스트라, <승리> 종합 기념박물관에서 공연 개최

9월 26일 19시에 <승리> 종합 기념박물관 전시관
에서 제 20회 공연 시즌을 여는 의미로 유즈노사할린
스크 챔버오케스트라가 콘서트를 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초대 아티스트로는 러시아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러시아 명예 배우인 알렉산드르 트로스잔
스크이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대 교수를 초
대했다. 알렉산드르 트로스잔스크이 연주자의 레퍼토
리에는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 협주곡 60개 이상, 수
많은 실내 관현음악과 20세기 작곡가들의 음악작품
등이 있다.

깊어가는 가을 밤,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작품 세계를 접할 더할 나위없는 기회
가 찾아왔다. 예술감독 겸 수석 지휘자인 찌그란 아흐
나자란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과 함께 여러분을 콘
서트에 초대한다. 입장은 무료. <승리> 종합 기념博物
관 홍보실은 49-57-17로 문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камерный оркестр даст концерт в ММК "Победа"

26 сентября в 19:00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музейн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камерный оркестр даст концерт, открывающий
XX концертный сезон.

Гость программы — российский скрипач, заслужен-
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профессор Московской государст-
венной консерватории имени Чайковского Александр
Тростянский. В репертуаре скрипача Александра Тро-
стянского более 60 концертов для скрипки с оркестром,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камерной музыки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композиторов XX века.

Осенним вечером зрителей ждет встреча с миром
композиций Иоганна Себастьяна Баха и Антонина
Дворжак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и главный
дирижер Тигран Ахназарян вместе с музыкантами оркес-
тра приглашает на концерт.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правки
по тел.: 49-57-17,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МК "Победа". (8면에 계속)

홈스크시, 제 2회 <한 가정에서> 축제로 여러 민족 모여

지난 15일(토) 홈스크에서 <한 가정에서> 민족축제가 펼쳐졌다.

이 축제는 사할린주 한인회와 홈스크한인회가 홈스크구역 행정부 협력하에 작년에 처음 열린 문화축제로 추진했다. 올해 축제는 민족축제로 한민족을 비롯 타타르인, 바쉬키르인, 아르메니아인 등이 참가했다.

축제무대에 오른 홈스크시 안드레이 수호메소브 시장, 사할린주 한인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주 민족연합회 마야 키릴로와 회장, 사할린주 두마 아르쥘 크루글리크 의원,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홈스크한인회 박영순 회장 등은 행사장을 찾아온 주민들을 환영하며 사할린의 다양한 민족들의 평화와 번영, 행복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홈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나와, 코르사코브 예술단들이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러시아민속팀, 한인 예술단, 아르메니아, 타타르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의 공연은 관객들의 기분을 한층 돋구었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팀, <아리랑>무용단 공연도 훌륭했다. 홈스크 태권도 선수들의 멋진 시범무대도 펼쳐졌다. 이날 여러 전시장, 문화체험 교실들도 진행되었는데 주한인회에서 준비한 한민족 물품 전시도 펼쳐졌고 특히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교수들이 진행하는 한글캘리그라피, 한지공예, 부채그리기 문화체험교실등은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축제에는 아나와한인회와 코르사코브한인회가 적극 참가했다. 화창한 날씨 탓에 관객들 역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소식이다.

(본사 기자)

(사진: 홈스크행정부 홍보실)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호의 계속)

II.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재외동포법 제2조 2항과 동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관계

(1) 재외동포의 범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지게 되면,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취업 기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제10조 제5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국내 토지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이 가능하며(제11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 제한조치를 제외하고는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인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제12조),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제14조)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권리 내지 혜택을 부여하는 재외동포법을 살펴보면, 동법 제2조 2호에서는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3가지로 분류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i)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ii)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iii)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분류된다. 그런데 i)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전과 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후손의 세대제한이 없으며, 그 후손들의 재외동포비자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4세대 이후 추방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ii)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iii)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는 문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ii)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무국적동포가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며, iii)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부분은 아래의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항('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걸려 3세대로 한정하게 되는 것이다.

(2) 법률과 시행령의 상충

위의 문제점을 보면,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에서는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이든 이후이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외동포 후손의 세대제한이 없으나, 그 다음 추가제한 조항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시행령(제3조 제2호)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 상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유보하였고, 그시행령에서 추가적인 제한으로 동포들의 3세가지지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즉 이를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재외동포자격은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3세대제한)+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라는 세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외동포의 3세대 제한'이라는 문제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라는 2가지 문제점이 추가제한으로 발생한 것이다.

2. 재외동포비자(F-4) 자격과 관련 법령 등의 문제점

1) 왜 단순 노무자는 재외동포에서 제외될까?(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 요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적용 범위)에서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관하여 위헌소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적용범위 조항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불허된 처분을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적용범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제4호에 따르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동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1호로 개정된 것)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제4호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8의2.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3호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추석 들놀이 즐겨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5일(토) 시한인회 건물 마당에서 노인정 어르신들을 모시고 추석맞이 행사를 준비했다.

전에는 시한인회는 해마다 어르신들을 위해 들놀이를 했는데 점점 몸이 약해지는 어르신들이 도시를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부탁하시길래 2년 전부터 들놀이 행사 형식으로 시한인회 건물 마당에서 즐거운 놀이장을 펼쳤다.

<에트노스> 예술학교 공연팀, <세종>

한글학교 유아반 학생, 장태호 시인과 주명수 화가, 아나톨리 쿠진 역사박사, <우정의 집> 민족단체 대표 등이 어르신들을 환영했다. 올해에는 청년부가 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를 대표해 할머니들을 축하하고 선물을 드렸다.

박 블라지미르 가수는 수 많은 노래를 들려주었으며 마당에는 출판이 벌어졌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낮 12시에 시작한 들놀이 행사는 저녁 8시에서야 끝났다고 한다.

이번 행사의 지원협력은 <가가린>호텔, 사할린인문기술대학, <랑테우> 카페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Холмске состоя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Идея проведения праздника, объединяющего наро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адлежит Холм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а воплощалась эта идея совместно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роходил как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й, а теперь среди его участников появились также татары, башкиры, армяне.

Почётными гостями праздника ст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ксана Пак,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йя Кириллова,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ртём Круглик, председатель ХМ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аталья Пак,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ндрей Сухомесов.

В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из Холмс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ивы, Корсакова. Зрителям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родные песни, танцы, игра на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Своё бойцовское мастерств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члены Холм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Параллельно на нескольких площадках для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работали выставки, мастер-классы, игровые и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Холмска.



Праздник Чусок отме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субботу 15 сентября акти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провел очере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ынешнее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риурочено к предстоящему Чусок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празднуется в Корею 24 сентября.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формате «Дыльнори» (Забавы в поле).

Если ранее его проводили на природе, на берегу моря или в районе леса, то уже третий год это действо проходит во дворе здания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данное место многие горожане знают как «ноинденг»-место отдыха пожилых людей). Это сделано по просьбе наших подопечных бабушек, которым, в силу возраста, все тяжелее даются поездки за город.

Поздравляли с предстоящим праздником и выступили: МБУДО "Дет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иаспор из РОО "Дома Дружбы", дети из нашей школы «Седенг», поэт Чан Тэ Хо, художник Дю Мен Су. От имени президента Пак Сун Ок с подарками и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для наших бабушек от РООСК, при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ежной группы.

Люди танцевали и плясали под корейские и российские песни в исполнении Пак Владимира. И никак не хотели расходиться. Хорошая погода, прекрасная атмосфера общения по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прекрасному проведению праздника.

Поддержку и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этого праздника оказали гостиница "Гагарин" (Квон Хен Дя и Тен Хе Сен), СахГТИ (Тен Сун Док), кафе "Рандеву" (Цой Ден Сун и Ким Ук Нам), Хе Ген Дя, историк Анатолий Тимофеевич Кузин, Ко Дон Д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ЮСМООК Лим Ден Хван



Концертные площадки Квачхона и Каннына покорили ю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музыканты

Концертные площадки Квачхона и Каннына покорили юные островные музыканты. Совместно со сверстниками из корейского оркестра KYDO и музыкантами примор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они дали два часовых концерта. Причем эти выступления отличались друг от друга как по набору композиций, так и по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А одно произведение — известную на весь мир "Ариран" — даже пришлось изменить.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в день втор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предоставила новые ноты. И дети его сыграли практически с чистого листа. Причем сделали это великолепно. Зал рукоплескал им стоя.

Перв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выступле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стал Квачхон — город-спутник Сеула. "Гранд Холл", вмещающий 800 человек, был заполнен до отказа. Зрители услышали 14 произведений. Специалисты отметили сложность и разнообразие программы. Несмотря на свой юный возраст, исполнителям оказались по плечу произведения разных жанров, начиная от мюзиклов и заканчивая шедеврами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Стоит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что в Квачхоне оркестр исполнил несколько произведений с известны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оперными певцами. Для многих маленьких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это был первый опыт подобн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Ребятам постарше доверили сольные партии. Например, София Альская из Невельска исполнила "Русский танец" Петра Чайковского. Своей игрой она привела в восторг южнокорейских любителей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Нельзя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произведение я исполняю одна — есть оркестр, ребята



мне помогают, просто моя партия немного выделяется, — скромно отметила после выступления София. — Когда я играю, оркестр находится позади меня. Поэтому, мысленно, в своей голове, я придерживаюсь собственного темпа. Поначалу для меня это делать было сложно, но с каждым годом я набираюсь опыта. Ведь, когда ежедневно практикуешься по 4-5 часов, то исполнять даже самые непрост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становится проще".

Вторым городом в этом гастрольном туре стан Каннын. Именно в нем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зад состоялась Олимпиада. Но в конце лета здесь прошел ряд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непростому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вопросу — возобновлению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Каннын — Владивосток. Сложность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магистраль должна пройти по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дорога начне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через 5-7 лет, а строители приступят к работе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Этому событию и был посвящен второй концерт сводного оркестра.

"Такие визиты для юных музыка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дет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ркестра KYDO становятся регулярными,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Самарин. — Здесь собраны самые одаренные ребята. Оркестр поочередно дает концерты в России и в Корею. Для нас же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дети получают сценический опыт и качество исполнения музыкаль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растет. Мы рост исполнитель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видим уже сейчас и очень верим, что с годами этот уровень будет лишь повышаться".

На начал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запланирован приезд корейского оркестра на Сахалин, сообщили в област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Островные любители музыки смогут увидеть новую совместную программу. Однако та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является лишь первым шагом на пути к реализации более глоб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 провед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где детские оркестры из Китая, Южной Кореи, Япон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смогли бы выступать друг с другом на одной сцене,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Чонно Ханбок»

21-22 сентября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культурный фестиваль «Чонно Ханбо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Чонно-гу.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тся третий раз, посвящено красоте и высокому качеству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остюма ханбок. В его рамках будут проведены традицион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парады, различные акции и ярмарка. По вечерам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традиционные танцы «кангансулле». Любый посетитель фестиваля сможет взять Ханбок на прокат. Глава округа Чонно-гу Ким Ён Чжон отметил, ч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Чонно, в которой находится много красивых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и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приложит все усилия дл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о традиционном корейском костюме Ханбок.

(RKI)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25 сентября в Нью-Йорке состоится саммит РК-США

23 сен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летит в Нью-Йорк, где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73-й сессии Генассамблеи ООН. Кроме того, 25 сентября он проведёт встречу со своим американским коллегой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В ходе саммита стороны обсудят результаты встречи лидеров РК и КНДР, а также перспективы дальнейших действий. Возможно, что в ходе саммит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подпишет поправки в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с РК, утверждённые сторонами незадолго до эт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утвердило Чон Гён Ду в должности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Комитет по вопросам оборон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утвердил в среду 58-летнего генерала ВВС Чон Гён Ду, до сих пор занимавшего должност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в качестве нового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30 августа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едложил его кандидатуру на пост главы оборо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вместо Сон Ён Му. Депутаты отметили, что Чон Гён Ду являетс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военным, обладает большим опытом в военной области и необходимыми моральными качествами.

27 сентября в рамках сессии Генассамблеи ООН состоится обсуждение ситуации вокруг КНДР

27 сентября в рамках сессии Генассамблеи ООН в Нью-Йорке состоится заседание по КНДР на министерском уровне. Об этом заявила 18 сентября в ходе очередного брифинг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осдепа США Хезер Науэрт. По её словам,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едёт госсекретарь США Майкл Помпео. В нё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министры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15 стран-членов СБ ООН.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Помпео намерен призвать мир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к выполнению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анкци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ашингтон ещё раз продемонстрирует готовность усилить давление в вопрос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НДР.

СМИ КНДР подробно освещали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начали освещать Пхеньянский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начавшийся 18 сентября,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Сообщались также имена ря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оторые сопровождали Мун Чжэ Ина. В их числе директор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РК Со Хун и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Чон Ёль Ён. Что касается содержания саммита, то отмечалось, что главы двух Корей обсуждали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через выполнение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описанных в Пханмунчжом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Тема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СМИ не затрагивалась. Вместе с тем,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переговоры проходили в искренней и тёплой атмосфере.

62,9%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сетят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малую родину»

В этом году в период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62,9% южнокорейцев планируют отправиться на «малую родину». 26,8% сообщили о своём намерении отправиться в путь в первый день праздничных выходных 22 сентября. В обратный путь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респондентов планирует отправиться 25 сентября, за день до окончания праздника. В качестве средства передвижения 67,6% южнокорейцев намерены использовать личный автомобиль. Остальные предпочитают автобусы и поезда.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работающих корейцев не намерены посещать малую родину в Чхусок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работающих южнокорейцев не планируют посещать свою малую родину в период выходных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порталами п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Inruit и Albacall среди 1.106 человек. Вышеуказанный ответ дали 53% респондентов.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в 75% был отмечен в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старше 60 лет. Наименьший уровень зафиксирован среди людей от 40 до 49 лет – 50%. В качестве причин данного решения указывались такие факторы, как отсутствие на малой родин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стресс, связанный со встречей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другие планы, крупные финансовые расходы. Кроме того, некоторые респонденты съездили на малую родину заранее, не желая делать этого в праздничные пробки на дорогах. (RKI)

Пришел конец войне?

Лидеры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пообещали дружить друг с другом

Визит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в Пхеньян можно записать в актив как Югу, так и Северу Кореи.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смогли не только еще больше подружиться, договорившись прямо сейчас съездить на священную гору Пэктусан, но и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я, которые в случае их выполнен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могут забыть об опасности войны друг с другом. Кроме того, КНДР заявила о возможности ликвидации своего главного ядер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лучае ответных шагов навстречу со стороны Вашингтоном. Теперь же слово за США, куда Мун направится уже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чтобы развить успех "мирного наступления".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бы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схода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сложному вопросу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Мун Чжэ Ина в Пхеньян, стартовавший 18 сентября, обречен был как минимум на "теплую и дружескую атмосферу" и почти родственное общение лидеров. Слишком уж много они успели наговорить друг другу комплиментов, да и по всем остальным линиям Юг и Север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желание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о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Мун и Ким превзошли самих себя, всячески подчеркивая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Ким и его супруга Ли Соль Чжу сопровождали Мун Чжэ Ина и его жену Ким Чжон Сук с самого первого шага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землю. Как только Мун сошел с трапа своего лайнер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Пхеньяна, то он и Ким кинулись друг к другу в объятия, стиснув друг друга три раза. А после этого гостей из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нимали всегда с самыми высокими почестями - с красными ковровыми дорожками, оркестром, почетным караулом, ликующей толп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выстроившихся от аэропорта и аж до самого центра Пхеньяна, и салютом из 21 выстрела. Ким сразу же сел с Муном в одну машину, а затем они проехали на лимузине с открывающимся верхом, приветственно размахивая ликующей толпе, которая скандировала "Объединение Роди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и его супруга тоже не остались в долгу. По пути следования кортежа Мун бросился здороваться с северокорейцами, а потом при случае жал руки всем попадавшимся ему северокорейцам - помощникам Ким Чен Ына, министрам, депутатам и даже официанткам в ресторане. В итоге Ким и Мун к радости журналистов преподнесли сенсацию. Ким Чен Ын согласилс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сетить Сеул, а Мун Чжэ Ин с готовностью откликнулся на идею лидера КНДР "прямо завтра махнуть на священную гору Пэктусан", и это в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день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К в Пхеньян. В общем, план "по взаимным любезностям" лидеры Юга и Севера перевыполнили со стахановским запасом, не уставая постоянно улыбаться почти все время визита.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в эти дни мрачного Кима или Муна никто не видел.

Однако все это было, конечно же, не более чем общим фоном и не главным итогом саммита. Основные и в чем-то прорывны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были подписаны 19 сентябр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Ким и Мун с утра в этот день провели переговоры с глазу на глаз. В итоге оба лидера скрепили подписями "Совместное пхеньянское заявление", а через секунду при них же главы военных ведомств заверил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выполнении Пханмунчжом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Если говорить в двух словах, то основную суть документов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резюмировала журналистам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Мы заявили о де-факто прекращении войны и создали базу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цветания на основе мира".

Пожалуй, самыми важными пунктами эти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для самих Корей, но и для остального мира - стали те, которые касаются военных вопросов и ядерного разоружения. "Обе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тказаться от любых способов и методов про проникновению и вторжению на территорию друг друга", "Юг и Север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полностью отказаться от любых враждебных действий в воздухе,



на земле и море, которые могут стать причиной для конфликта и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Стороны - глядя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подписанные министрами обороны. Военные далее конкретизировали эти слова: Юг и Север с 1 ноября 2018 года больше не будут в районе ДМЗ проводить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друг против друга, все стрельбы и маневры масштаба полков и более можно осуществлять только на расстоянии дальше, чем пять километров от границы; определены районы у ДМЗ в воздухе и на море, куда теперь нельзя заходить боевым кораблям и залетать военным самолетам, включая самолеты-разведчики. Подчеркнуто, что обе стороны примут "все меры,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в любом из пространств каких-либо столкновений и конфликтов с применением военной силы".

"Если говорить просто, то смысл следующий: что бы ни произошло - не стрелять", - так резюмирова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чиновник общий подход. Кроме того, военные двух стран согласились вместе провести работы по извлечению останков погибших в годы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и обеспечить все меры по во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любых действий в рамках межкорей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совместном заявлении лидеров Юга и Севера, помимо военной сферы, добавлены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скусства, спорта, железных и автодорог и даже экономике (правда, последнее с важной оговоркой - "когда позволят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В частности, Сеул и Пхеньян согласовали меры по активизации обменов, контактов, регулярному проведению встреч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а так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бороться за то, чтобы совместно провести в 2032 году летнюю Олимпиаду, а с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2020 совместно выступать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Кроме того, в течение года они должны провести церемонии по соединению железных и шоссейных дорог на восточном и западном участках.

В этом же заявлении есть одно очень важное обращение от КНДР к США. Пхеньян согласился допустить на полигон по испытанию ракетных двигателей в местечке Тончханны и стартовые площадки зарубеж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чтобы те лично убедились в окончательной ликвидации объектов. Кроме того, Севе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случае ответных шагов со стороны США готов пойти на бесповоротную ликвидацию ядерного полигона в Ёнбене и прочие действ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отказ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 сворачивание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Это очень важные слова, учитывая, что Ёнбен - главный известный ядерный объект КНДР.

Таким образом, лидеры Юга и Севера смогли не только сделат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ного, чтобы снизить двустороннюю напряженность, но и создали предпосылки для развития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по ядерному разоружению.

Пожалуй, именно это и скажет Мун Чжэ Ин Дональду Трампу, когда уж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рибудет в США. Так что теперь надо Вашингтону думать о своем ответе, помня, что Юг и Север пообещали друг другу "ни при каких условиях не воевать друг против друг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4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лаг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прибыл на Сахалин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передачи спортивного символа состоялась перед старт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дня бега «Кросс нац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Флаг, прибывший из Якутска,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почетного караула доставили на площадь Победы.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пройду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8 по 17 февраля 2019 года. Свыше 2 тысяч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более чем 20 стран будут бороться за победу в восьми видах спорта: горных лыжах, сноуборде, биатлоне, лыжных гонках, прыжках с трамплина, фигурном катании, шорт-треке и хоккее.

Проведение столь масштаб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мощному развитию спортивной отрасл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егодня работает лучш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Горный воздух», где в начале года перед стартами в Южной Корее готовились российские олимпийцы и паралимпийцы. А вскоре комплекс,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города, станет главной соревнова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етских игр. Поболеть за участников крупных состязаний смогут и сахалинцы, и гости области. Для игр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ут также задействованы ледовые арены и 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спортивным объектам уже дали ранее посетившие остров делегации из национальных Олимпийских комитетов стран-участниц «Детей Азии»: Палестины, Сирии, Таджикистана, Таиланда, Филиппин, Шри-Ланки, Япон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ы вместе с вами сделал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стоящей спортивной, и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заслужили право на проведение первых зимних игр,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 Уверен, что только вместе, сообща, мы сможем провести эти масштабные состязания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Они дадут мощный толчок не только развитию спорт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о и отрасли туризма. Я желаю, чтобы мы на весь мир заявили 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о регионе, который може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самые крупные проекты.

Все ближе 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дут самые талантливые молодые спортсмены из стран Азии. Они увидят, что на острове замечательная спортив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прекрасная природа,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 доброжелательные люди.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многие из ваших гостей станут Олимпийскими чемпионами и, выступая на крупнейш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будут вспоминать Сахалин, –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митета «Дети Азии» Дмитрий Глушко.

Как и у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у «Детей Азии» есть традиция передачи флага. Почетная миссия нести символ игр сегодня выпала победителям прошлых игр, теперь уже призерам первенств Европы и мира: Леониду Спиридонову (вольная борьба,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 – Якутия), Михаилу Гюнтеру (баскетбол, Москва), Гаврилу Цыпандину (северное многоборье,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 – Якутия) и Светлане Тарнайкиной (тхэквонд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бывшие в регион гости проведут серию мастер-классов для остров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По окончании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спортивная реликвия отправилась во дворец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где будет храниться до открытия игр, которое состоится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9 февраля 2019 года.

Для многих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Дети Азии» стали трамплином к олимпийским медалям. Первые игры состоялись в Якутске в 1996 году и на протяжении 20 лет проводились раз в четыре года только по летн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А в 2016 году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й комитет «Детей Азии»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провести первые зимние состяза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ущее ультразвуковой диагностики обсуждаю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ибыл профессор,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ультразвуковой диагнос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медицинской академии непреры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ладимир Митьков.

В ходе открывшейся 18 сентябр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он познакомил островных коллег с новыми практиками ультразвуко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ладимир Митьков детально остановился на современных подходах к диагностике патологии печени и мочеполовой системы. В обмене мнениям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УЗИ-специалисты из област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 – при помощи видеосвязи.

Сейчас федер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азрабатывает новый стандарт проведения ультразвуковой диагностики. Он предполагает увеличение сроков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с 4,5 месяца до 2 лет. Речь идет о врачах, которые уже прошли интернатуру по одной из практически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Это позволит медикам заниматься изучением дисциплины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понять все нюансы. Во время обучения охватывается колоссальный объем инфор-

мации по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акушерство с гинекологией, сосуды, сердце и так далее, – пояснил главный внештатный специалис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по ультразвуковой диагностике Владимир Шальнев. – Документ, регламентирующий стандарты, внесет ясность в проведение УЗИ-диагностики, а также урегулирует работу с пациентами.

Росси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УЗИ занимается больш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Ежегодно мы проводим по 2-3 больших мероприятия в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ах, съезды, в которых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от 600 до 800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лучать самую свеж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могают и такие конференции, – подчеркнул профессор Владимир Митьков.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ет экспертный совет по ультразвуковой диагностике, который координирует работу службы. Одно из последних предложений, поддержанное совещательным органом, – введение видеофиксации обследований.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но позволяет провести всесторонн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ведущ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х местонахождения. Активно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и по обновлению УЗИ-сканеров, только в этом году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области получат 14 новых аппара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ущен онлайн-сервис для оперативного решения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жителей

Система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городом», ранее успешно опробованна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шла на региональный уровень.

Теперь ее возможности доступны для жителей Поронайского 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Уже в первые дни работы электронная площадка собрала в обо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коло 20 обращений. Чаще всего жители районов обозначали проблемы коммунальной сферы, например, указывая на ошибки в платежных квитанциях или несвоевременный вывоз мусора. Кроме того, поднимались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состоянием дорог и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Механизм действия «Центра управления городом» такой: нужно зайти на портал или скачать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Далее – описать суть волнующего вопроса. Например,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монта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и, открытый канализационный люк, выбоина на дороге, ненадлежащий вывоз мусора. Также сахалинцев беспокоят очереди в МФЦ, нехватка талончиков к врачам, – поясн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ергей Попов.

Онлайн-сервис позволяет указать на карте место, где существует проблема, и приложить фото. Через электронную площадку обращ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сразу же поступают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ведомства. К работе открытой площадки подключены не только муниципальные, но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Ответ о 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заявитель получает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 дней – то есть в три раза быстрее, чем через официальный запрос.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городом» – это простой форма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бщества и власти. Если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Поронайска или другого города заметил проблему, ему не нужно слать письма во всевозможные инстанции и месяц ждать ответа. Достаточно оставить обращение на портале или через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Попов.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роведенных работ пользователь интернет-портала может дать оценку действиям исполнителя: «Проблема решена» или «Проблема не решена». Если нарушения устранить не удалось, заявка возвращается в курирующие ведомства на доработку. А сахалинцы получают ответ, через какое время устранят недостаток.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городом» призван стать сахалинским аналогом московского проекта «Наш Город», который уже давно успеш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жителями столицы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Сейчас она находится в стадии тестирования также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со временем к электронной платформе присоединятся вс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включая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через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городом» уже обработано более 800 обращений сахалинце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готова к предстоящему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более чем на 90 процент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завершающую стадию вошли работ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основных систем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к осенне-зимнему периоду.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заканчивается ремонт основного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на 226 котельных, а также работы по замене ветхих тепловых и водопроводных сетей.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региональные службы ЖКХ на 92 процента выполнили план подготовки к осенне-зимнему периоду, – сообщили в профильном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 Помимо котельных работы затронули 26 центральных тепловых пунктов, 85 водозаборов, 90 водонасосных станций и 141 объект водоотведения. Заменено почти 18 километров теплотрасс и 35 кило-

метров сетей водоснабжения, а также около 6 километров труб газопроводов. К началу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иобретение 7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езервных дизель-генераторных установок для объектов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Одной из важнейших задач подготовки к предстоящим холодам является обеспечение необходимого запаса топлива. В целом по области на складах сформировано 36,9 тысячи тонн угля и 1,9 тысячи тонн жидкого топлива. Плановые показатели уже достигнуты в Тымовском, Анивском, Смирныхов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говоры на поставку твердого топлива заключены у 27 предприятий, в завершающей стадии подписания – еще у 4 организаций.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подписаны договоры на поставку газа.

Для снижения износа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коммун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ежегодно выделяются финансовые средства. В 2018 году на закупку областного резерва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для оперативног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аварийных ситуаций направлено более 3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аварийной работы ЖКК затратят свыше 1,4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Кросс нации» на Сахалине побил рекорд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частников

Более 4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з 13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дню бега. За девять лет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традиционного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го забега возросло в девять раз.

Площадь Побед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5 сентября утром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огромную спортивную площадку. Дистанции длиной в 1, 4, 6, 8 и 12 километров пожелали преодолеть любители бега разного возраста и уровня подготовки – дошколята и пенсионер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спортсмены и люд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физичес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те, для кого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 это не просто слова, а руководство к действию. Я желаю вам хорошего настроения и прекрасного финиша! – напутствовал спортсменов Антон Зайцев, сам, к слову, вышедший на старт четырехкилометрового забег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бега поддержали жители 13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Больше всего легкоатлетов собралось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 свыше 2,5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ервыми на старт вышли мальчики и девочки 2009-2010 годов рождения. Им предстояло пробежать 1 километр.

Я совсем не волнуюсь, – поделилась семилетняя Даша Егорова. – Нужно просто бежать быстро-быстро, и тогда все будет хорош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старания Дарьи, первыми финишный створ пересекли другие участники – Светослав Попов и Светозара Улитина. Светозаре не хватило буквально полторы секунды, чтобы разменять рубеж четырех минут.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а этой же дистанции лучшими стали Анна Витязева и Антон Дорофеев. А у спортсменов с поражениями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поздравления с победой принимал Андрей Семикрас.

Затем был дан старт самому массовому забегу. Его минимальная дистанция составляла 4 километра, максимальная – в три раза больше. Самые быстрых на финише ожидали не только медали, грамоты, но и ценные призы от спонсоров праздника.

В беге на 4 километра среди мужчин 1998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старше победил известный островной легкоатлет Олег Сергеев.

В женском забеге не нашлось равных Ларисе Жук.

В категории ветеранов первый приз завоевали Эмилия Минаева и Тен Бен Хи. А у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1998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младше забег на 4 километра выиграла Анна Кожина и Евгений Луженков.

Самые смелые любители легкой атлетики решились преодолеть 12 километров.

На 6-тикилометровой дистанции не нашлось равных Елизавете Байковой. Победу ей принес результат 20 минут и 12 секунд. В забеге женщин на 8 километров победила Марина Солодова (31 минута и 49 секунд). Юношеский забег на этой же дистанции выиграл Максим Петров (29 минут и 33 секунды). А на самой сложной 12-тикилометровой дистанции никто не смог противостать Никите Хаян. Он победил с результатом 41 минута и 41 секунда.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самые быстрые участники «Кросса нации» получили грамоты, медали, кубки, ценные призы и аплодисменты зрителей. Главным же итогом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о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Впрочем, судя по наметившейся тенденции, срок жизни нынешнего рекорда продлится ровно д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동포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19" 제작 모금 시작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19'을 제작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을 9월 11일(화)부터 시작하였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 1세대들이 기일, 생일, 농사일, 손없는 날 등 일상생활을 음력으로 지내지만, 러시아에서 음력 달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작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여섯 번째 제작이다. 러시아 달력에 음력과 절기, 한국의 명절 및 국경일을 표기하고, 짧은 러시아어 설명을 넣어 3, 4세 동포들도 전통문화를 알 수 있도록 만든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한국의 시민들에게 사할린 동포들을 알리고 공감하기 위한 취지로 온라인 모금을 통해 제작해 왔다. 2017년의 경우 같이가치with kakao를 통해 댓글응원과 공유, 직접기부 등으로 5,773명이 참여했고, KIN 후원계좌를 통하여 시민들과 재외동포, 일본인들도 모금에 동참해 주었다.

이렇듯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과 한국을 잇는 작은 선물이자 시민의 힘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활동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온라인 모금 참여

1) 같이가치 with kakao(10월 11일까지)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7155>

2) KIN 모금 계좌(같이가치 모금 종료후)

☞ 우리은행. 1006-301-227783. KIN(지구촌동포연대)

계좌입금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kin2333@gmail.com.

(지구촌동포연대 제공)

사할린 강제징용자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화태(樺太)에서 온 편지-국가는 왜 날 버렸나?'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해 재조명했다.

김복곤 씨는 아버지가 남긴 사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사진 속에는 19명의 남자들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함께 남겨진 '결의분첩'이라는 제목의 명부에는 19명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이 남겨져 있었다.

이에 제작진들은 사진 속 인물들의 정체를 찾아 나섰다. 남화태도는 남사할린. 결의분첩 속 이들은 사할린에 남겨진 강제징용자로 추측됐다. 이에 제작진들은 사할린을 찾았다.

그 곳에서는 한국인들의 묘가 상당수 남아있었고 그 중 결의분첩 명부 속 남자들도 몇 명 찾을 수 있었다. 2차 대전 패망 이후 일본인들은 자국민만 태우고 돌아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들 뿐만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을 괴롭혔던 전범기업들. 그들은 여전히 부끄러움도 사죄도 모르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깨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 환송이 결정됐다.

하지만 파기 환송된 재판은 고등법원에서의 승소 이후 2013년 다시 대법원으로 재상고 되었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는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에 제작진은 재판부에 "제발 지금이라도 서둘러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또한 징용에서 행방불명된 이들의 소재를 하루 빨리 파악해 줄 것"을 지적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당시 귀국선을 기다리며 언덕에서 며칠을 보냈던 우리 동포들. 정의와



<사진=SBS그것이알고싶다 캡처>

외교라는 이름의 귀국선을 지금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사할린 강제징용 이산가족인 아버지를 찾기 위해 사할린까지 방문했지만 아버지의 흔적을 찾지 못하는 정태랑 씨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한편 사할린의 한인 피해자는 일제강점기(1938년~1945년)에 강제로 끌려가 탄광, 토목공사,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은 광복 후 일본 정부의 방치와 미 수교된 구 소련과의 관계로 1990년 한·러 수교 전까지 귀환길이 막혀 고국 땅을 그리다 생을 마감했다.

학계는 종전 당시 한인 약 4만3000명이 사할린에 잔류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는 6289명,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묘지는 1395기로 파악했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외교부와 적십자를 통해 러시아 정부와 사할린 한인묘지 발굴과 봉환을 합의한 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회에 걸쳐 한인유골 55위를 봉환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 사업은 예산 문제로 6개월 단위로 국회 예산 심의를 받아 이어오던 중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돼 희생된 한인 유골 16위를 봉환해 '국립 망향의 동산'에 14일 안치했다.

(포커스 데일리)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

740만 재외동포, 더 커진 하나로 한반도의 빛이 되다

오는 3일(수)부터 사흘간 서울서 75개국 4백여 명 한인회장 모인 가운데 열려 한인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모국의 평화 통일 및 번영 위한 한인회 역할 집중 논의

전 세계 한인사회의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포사회의 현안과 모국 평화 통일과 번영을 위한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오는 10월 3일(수)부터 사흘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75개국 한인회장 및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임원진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더 커진 하나, 한반도의 빛이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대회 첫날인 3일,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한인회장과 외교부 및 정부 관계자 등 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식이 열린다. 개회식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특별강연에 이어 환영만찬이 진행된다.

이틀째인 4일은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재외동포를 위한 대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에는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와 지역별 현안토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동포사회 기여방안과 지역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한인의 날인 5일 오전,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는 한인회장들과 각계각층의 내외빈 등 6백여 명이 모여 재외동포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가진다. 이어서 한인해외입양을 주제로 수잔 콕스 홀트인터내셔널 부회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정당정책포럼과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정당별 정책 및 지역별로 논의된 현안 발표를 진행하고, 한인 사회의 의견을 모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어 폐회식에서는 한인회 운영사례 시상식, 장학금 전달과 공로패 수여식 등을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한인리더들이 모여 한인사회 발전과 한인네트워크 강화와 한민족 공동체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재외동포의 교류와 의사결정의 장"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회 간 소통과 교류는 물론, 모국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한 세계한인의 역할 등 발전적인 의견들이 많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2018 세계한인차세대대회' 17일 개막

전 세계 24개국 80여명의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이 참가하는 '2018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17일(월)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를 슬로건으로 21(금)까지 4박 5일간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진행된다.

이 날 오후 5시 30분에 열린 개회식에는 차세대 리더들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내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서로가 걸어온 다양한 길을 함께 나누고 자랑스러운 한인으로서 미래를 향한 꿈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모국 방문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차세대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사회는 여러분과 같은 차세대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 도 거주국 주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많은 인재들이 나올 것"이라며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한인 차세대로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통성을 함께 이어나가는 주인공이 되어주길 당부하며, 머무는 동안 보람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이어 주요 인사들과 차세대 리더들이 함께



대형 한반도 지도에 무궁화를 꽃으며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개회식에 앞서 진행된 기조 강연에서는 前 통일부 장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연이은 개최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상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대회 기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둘째 날에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공유하며 정체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FLC 토크콘서트'와 국내 차세대 전문가와 교류하는 'FLC 전문가 네트워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다음 날인 19일(수) 오전에는 파주 DMZ를 방문해 분단의 뼈아픈 역사를 직접 보고 배우며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 차세대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이모저모

(2면의 계속)

<마가목 세상>, 유즈노사할린스크 신체장애인을 위해 관악 군악단, 왈츠와 대회가 준비되었다

가까린 문화휴식시공원에서 신체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위해 제 9회 전례적 <마가목 세상> 문화레크레이션 행사가 개최되었다고 시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200명이 한자리에 모인 축제였다. 축제는 놀이와 무용을 연행하기에 공간이 더 넓을 수 있는 카트 경기장에서 최초로 열렸다. 엘레나 표도로와 부시장과 엘비라 유르코와 사회정책국 국장이 관객들에게 기분 좋고 활기찬 날이 되기를 기원했다.

엘레나 표도로와는 "마가목 세상"은 연행사 중 가장 고대했던 행사중 하나라며, "이 행사는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준비된 문화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도록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관객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내에 주둔한 관악 군악단의 연주와 악단의 독주자인 라리사 카차이키나, <루스키 쉼렘> 현대 민요 앙상블과 사할린 러시아 민속합창단의 노래를 즐겼다. <수다루쉬카> 무용단의 참가로 <나는 왈츠의 아름다운 소리를 기억한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축제 참가자들은 손수 제작한 꽃다발, 보석함, 악세서리들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그들을 위해 게임, 낭독대회, 다양한 상품 수여식, 특히 야외에서 휴식을 취한 사람들이 기운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Духовой оркестр, вальс и конкурсы ждали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а "Рябиновом крае"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А. Гагарина в девятый раз состоялось традиционное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ля горожан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Рябиновый кра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Оно объединило около 200 человек. Впервые праздник прошел на площадке картодрома: здесь больше места для игр и танцев. Хорошего настроения и бодрости духа пожелали отдыхающим вице-мэр Елена Федорова и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Эльвира Юркова.

— "Рябиновый край" — одно из самых ожидаемых мероприятий года. Здесь можно проявить свои таланты, увидеть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а главное — пообщаться, — отметила Елена Федорова.

Отдыхающие смогли насладиться музыкой и песенными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в исполнении военного духового оркес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арнизона и его солистки Ларисы Качайкиной, ансамбля современной народной песни "Русский Терем" и сахалинского рус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хор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танцевальной группы "Сударушка" на "ура" прошла программа "Я помню вальса звук прелестный".

Участники праздника представили на суд зрителей собственноручно изготовленные букеты, шкатулки, украшения. Для них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игры, конкурс чтецов, вручени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ризов, а также горячее питание, чтобы отдохнувшие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часов люди смогли подкрепить силы.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장세복 선생님께 드리는 축하문

Уважаемая Светлана Кирилловна!



Примите самые сердечны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 60-летним юбилеем!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х 35-ти лет, что Вы проработали в нашей редакции,

Вы всегда были примером бесконечного трудолюбия, терпения,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и и скромности!

Вы очень светлый человек. От всей души желае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огромной любви близких и душевного спокойствия.

회감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EDA.SAKH.COM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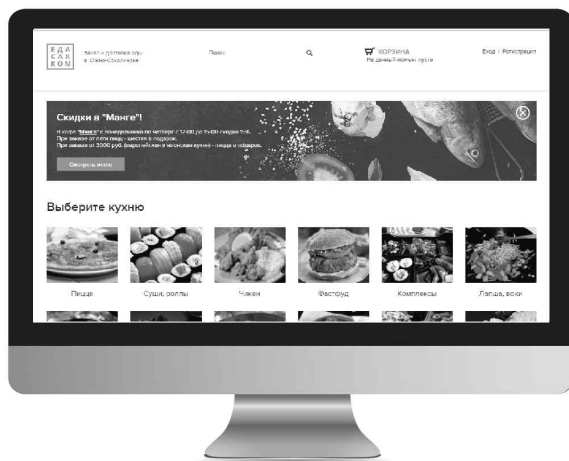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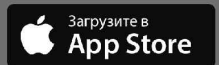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